

‘급커브 위험천만’ 백운고가 철거 본격화

광주시 내달 설계용역 발주...2017년 지하철도 공사 돌입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 추진, 왕복 4차로 2019년 완공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위 고가 도로를 걷어내고 지하 차도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주시가 백운광장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오랜 기간, 도시 발전에서 제외됐던 백운광장 주변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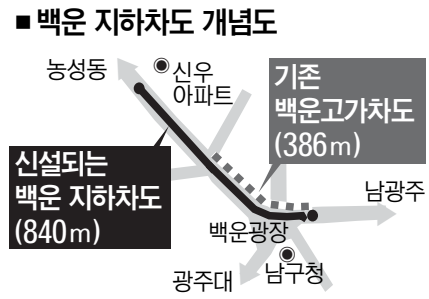
14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다음달 남구 백운광장 교차로(고가)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공사가 본격화된다 것이다.

지난 1989년 준공된 백운 고가는 폭 15.5m(왕복 4차선), 길이 385.8m로 하루 평균 1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백운 고가는 건설 당시 경전선 철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경사, 급커브로 시공돼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교통시설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특히 백운광장 고가도로로 인해 주변 동네가 슬럼화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주민들은 철거를 요청하는 가 하면 상권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남구는 이 때문에 광주시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기존 고가도로(길이 386m)



를 철거하고 왕복 4차선(폭 18m)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간 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역 내용이 구체화되면 주변 차량흐름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남구는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주변 차량흐름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침체됐던 백운광장 주변을 비롯한 지역 개발 방안 등이 용역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용역 진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7년 초 백운 고가를 대체할 지하차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백운 고가는 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총 공사비(295억)의 50%를 지원받았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10여년간 계속



급경사와 급커브로 시공된 백운고가도로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남구 백운 고가도로 철거가 본격화된다. 남구청에서 내려다 본 백운고가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된 백운 고가 철거 등 교차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설계용역 착수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백운 고가 철거와 지하차도 건설로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해질 19:48, 달출몰 04:41, 달몰입 18:55

소나기 피하세요
가끔 구름 많겠으며 곳에 따라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 5~30mm.

지역별 날씨 (℃)

광주	소나기	21/32	보성	맑은뒤흐림	20/29
목포	맑은뒤흐림	21/29	순천	맑은뒤흐림	20/30
여수	맑은뒤흐림	21/26	영광	맑은뒤흐림	20/31
나주	맑은뒤흐림	21/32	진도	맑은뒤흐림	20/29
완도	맑은뒤흐림	21/29	전주	맑은뒤흐림	21/31
구례	소나기	20/32	군산	산	22/29
강진	맑은뒤흐림	21/30	남원	소나기	22/30
해남	맑은뒤흐림	21/30	홍산도	맑은뒤흐림	20/25
장성	소나기	20/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동~북 1.0~1.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40	운동	70
빨래				

주간 날씨

날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씨	☀	☀	☁	☀	☀	☀	☀
온도	20/31	22/29	23/30	23/31	23/31	23/30	23/30

부룬디 선수 2명 난민 신청

사라진 파키스탄 선수 행방 추적

부룬디 선수 2명 난민 신청

사라진 파키스탄 선수 행방 추적

광주U대회에 참가했다가 선수촌을 이탈한 뒤 행방불명됐던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14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룬디의 바르투완요(27)와 니온 게레(여·22) 선수 2명은 지난 12일 서울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3선 출마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룬디 선수들은 지난 4일 오후 5시에 선수촌으로 복귀하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조직위와 경찰은 또 파키스탄 유도선수 행방도 쫓고 있다.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지난 10일 출국을 위해 선수촌 승강장에 집결하지 않고 사라졌다. 그는 파키스탄 선수단장이 맡긴 공금 1000만원 상당을 갖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음에 낮잠 방해받자 워킹 인터폰 파손...알고보니 빈집

○...대낮에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워킹에 쫓아가 인터폰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권모(40)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A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42)씨의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파손한 혐의. ○...낮잠을 자려던 권씨는 층간소음이 지속되자 항의차 워킹에 사는 안씨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가갔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워킹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빈집이었다”며 때늦은 후회.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부실구조’ 123정장 항소심 감형...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형사 6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 받은 김경일(57·해임)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해경 지휘부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워킹 지휘라인의 경우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장 지휘관 한명에게만 구조 실패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 대형 안전사고의 구조 업무를 위해 출동한 현장 지휘관에게 부실한 구조의 책임을 물었던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김 전 정장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를 1심과 달리, 세월호 희생자 전원(1명 제외)으로 폭을 넓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 아파트 인근에 맹꽂이 집단 서식

100여마리 관찰...멸종위기종 2급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멸종 위기종(2급)인 맹꽂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산구 소촌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1주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 옆에서 맹꽂이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져 확인한 결과, 인근 구릉지에서 맹꽂이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며 산란하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

맹꽂이들은 아파트단지 놀이터와 직선거리로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넓이 10㎡, 깊이 1.5m 가량의 웅덩이에 모여 살고 있었다.

해당 서식지 주변은 이렇다할 오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로 웅덩이가 조성된 과정을 수소문한 결과 3년여 전 이곳에 있던 묘를 이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심 아파트 단지 인근에



멸종위기종인 맹꽂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서식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맹꽂이는 개구리나 두꺼비와는 달리 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이 특징으로, 장마철에 알을 낳고 부화하는 습성이 있는 만큼 산란기에 맞춰 조속히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정점미씨는 “근처에 아파트 개발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는 곳에 맹꽂이와 청개구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조속히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 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